

# 山东大学

## 二〇一八年招收攻读硕士学位研究生入学考试试题

科目代码 643 科目名称 综合韩国语

(答案必须写在答卷纸上, 写在试题上无效)

### 一. 다음은 한국어 관련 지식 문제입니다. ( )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십시오. (괄호당 3 점, 총 45 점)

1. 한국어 자음에 있는 비음(콧소리)은 ( ), ( ), ( )이다.
2. 전 세계에서 한국어 사용인구는 약 ( )만 명이고 세계에서 ( )위쯤 해당한다.
3. 한국어 품사 독립언에는 ( )가 있다.
4. 단어는 그 문법적 기능에 따라 체언, ( ), ( ), ( ), 독립언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5. 한국어에서는 청자를 높이는 등급을 ( ), 해요체, ( ), 하계체, ( ), ( ) 여섯 등급으로 나눈다.
6. 한국어의 경어법은 존경의 대상에 따라 주체경어법, ( ), ( )으로 나뉜다.

### 二.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총 15 점)

### 三.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소문자당 2 점, 총 20 점)

1.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 ) .
2.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 ) .
3. 아직 1 학년이라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녀석이 제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 ( ) .
4.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나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임금도 오르는기는 커녕 ( ) .
5. 비가 왔기에 망정이지 농사를 망칠 ( ) .
6.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 ) .
7. 사람이 많은 데 반하여 쓸 만한 사람은 ( ) .
8.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 ) 적이 있거든요.
9.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외로운 이들에겐 ( ) .
10.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 ) .

### 四. <보기>에서 알맞은 속담을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소문자당 3 점, 총 15 점)

- |                  |
|------------------|
| 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
| ②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
| ③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
| ④ 갈수록 태산이다.      |
| ⑤ 꿩 대신 닭이다.      |

1. 인수: 혜림아, 민속촌에 오니 좋지?  
혜림: 그래, 모처럼 시원한 바람도 쐬고, 우리 조상들이 전에 살았던 모습도 보고 하니 좋다.  
인수: 그래, 나도 도시에서 자라서 책으로만 읽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흥미롭다.  
혜림: 아직, 반도 구경을 못했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 일찍 오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거든.  
인수: 실은 나도 배가 고프다. ( )이라고 했으니, 점심을 먹고 더 돌아보자.
2. 엄마 1: 댁의 아이는 공부를 잘 하나요?  
엄마 2: 잘 하기는요. 공부는 안하고,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려고 해요.  
엄마 1: 우리 아이도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탈이에요.  
엄마 2: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엄마 1: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데, 애들이 공부를 안하니 걱정이 ( ) .
- 3.



혜림: 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말이야.

인수: 뜬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라.

혜림: 집에 가는데,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어.

인수: 무슨 일로 싸우고 있었지?

혜림: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데 애들이 치고박고 싸우잖아.

인수: 그래서 너는 애들한테 더 심하게 싸우라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나?

혜림: 아니, 나야 그 광경을 보자마자, 애들을 뜯어 말렸지.

인수: 잘 했다.

혜림: 그런데 주위에 있던 어른들은 자기와는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 ) 말할 생각을 전혀 않고 지켜보고만 있더라. 참 한심하지?

인수: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심보구나.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심보하고 똑같구나.

4.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렀다. 이유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가족들과 서울 구경을 하는 날이다. 원래는 가족들이 아닌 친구들과 가려고 했다. 그러나 모두들 어디로 놀러 간 상태. 그래서 ( ) 가족들과 가게 된 것이다. 아침 9시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기차 좌석이 없는 관계로 입석을 사서 서서 가야 했다. 기차 안에서 난 서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이며,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이다. 그래서 서울에는 남대문, 광화문, 경복궁 등 많은 유적이 있다. 우리는 오늘 덕수궁과 국립박물관, 남대문 시장을 가기로 했다. 어느덧 서울에 도착했다.

5.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친구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같은 학용품을 가지고 있어도 친구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라면을 먹다가 옆의 친구가 짬뽕을 먹으면 라면보다 짬뽕을 먹고 싶답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 남의 것과 비교하는 순간 부러움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서 그래요. 쉽게 말해 ( ).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내 것이 커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五.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총 15 점)

韩国教育界有一个谁也不否认的另一个常识。就是学生每天用功学习到晚上拖着疲倦的身子回家。朴槿惠总统在候选人时期似乎是在意这一现实，并强调了‘幸福的教育’。一些教育团体也呐喊‘陷入挫折与绝望沼泽的学生’、‘市场主义和竞争主义的受害者学校’。韩国的青少年被认为是世上最不幸、最痛苦的学生。

六. 다음의 글을 읽고 느낌글(读后感)을 900 자 정도 쓰세요. (총 40 점)

‘자녀 위해서라면...’ 유치원도 인수하는 중국 부모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한 자녀 정책'을 4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기업가가 4세 딸을 위해 20억 원 상당의 유치원을 사들여 화제다.

7일 중국 화상신보(華商農報)에 따르면 랴오닝성 잉커우(營口)시의 한 기업가는 최근 1천만 위안(18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시내의 한 유치원을 인수했다.

이 기업가는 유치원에 추가로 시설 투자를 해 고급 환경으로 바꾸고 교사들도 보강한 뒤 자신의 딸을 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위화감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걱정하고 있다.

유치원을 인수한 기업가는 현지 언론과 익명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딸은 내게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며 "이전에 딸이 다니던 유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좋은 유치원이 있어 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집안 환경을 가진 아이를 일부러 어렵고 고달픈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마침 여윌 돈이 있어 투자도 겸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교육 전문가들은 유치원 운영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에 우려를 나타냈다.

선양대학 사범대 관계자는 "특별 대우를 받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월감에 사로잡혀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극기심과 자립심이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녀를 오히려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본인이 한 자녀 가정에서 자란 신세대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2대째를 맞은 외동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쏟아붓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대학생 학비의 20배에 달하는 고급 유치원이 등장하고 아이가 첫 돌이 지나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젊은이들의 잦은 이직과 과소비 현상이 부모의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